

서울市齒科醫師會/公職齒科醫師會

'90 綜合學術大會, 盛況裡에 開催



〈開會辭와 祝辭를 各 各 發讀하고 있는 朴祥男 市齒會長과 尹興烈 齒協會長〉

〈총회장면〉

서齒 및 공치 공동주최 90년도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최측 회원은 물론 경향각지에서 많은 회원의 참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연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서齒 朴祥男會長은 대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발달하는 치과진료의 흐름을 체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당부했으며 李鍾甲공직치과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과의사들도 변화되는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강2연제, 심포지움 4연제, 라운드테이블, 기자재전시회등으로 꾸며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平澤忠교수(日本, 鶴見大學齒學部)의 「신재료 및 신기술」과 金鍾술교수(서울의대 정신과)

의 「치과환자의 심리학적 관리」등의 특별강연이 많은 참석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미래치과 진료의 중요성」에 관한 심포지움 4개 연제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치재상협회 회장社인 德成交易을 위시하여 (주)新興, 大明實業등 많은업체가 참가한 기자재전시회 또한 성황을 이루었으며 치과위생사에 대한 강연도 열렸다.

특히 45개연제가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룹별로 새로운 치의학에 대한 열띤 토의를 가졌으며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 진행됐다.

이날 대회장에는 尹興烈치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치정회 金東順회장, 金明國서울치대학장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